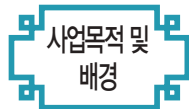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나도 동네 예술가’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 해결 방법은?

산본1동은 군포시의 관문으로서 안양시와 경계하고 있고 산본 북개천을 기점으로 한 신도시 진입지역이며, 전철역(1, 4호선)이 소재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또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소규모 상권이 발달되어 있다.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주거 형태를 이루고 있고, 복합적인 주민계층의 분포로 다양하고 독특한 지역정서가 표방되고 있다.

그러나 다세대 밀집지역에서 나타나는 쓰레기와 주차 문제는 산본1동도 피할 수 없는 문제였다.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가 지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고향을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반면, 최근 중국계 이주민의 유입이 급증(동 인구의 약 17.4% 추계)하면서 주택가 쓰레기 문제가 지역 공통의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 소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3층

전 화 031-390-0505

팩 스 031-390-0508

이메일 gpagenda@hanmail.net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 해결 방법은?

낙후된 기반시설과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 문제가 지역 공동의 문제가 되면서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하고 시민 의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쾌적하고 살기좋은 산본마을을 조성하고자 이 사업은 시작되었고, 사업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주민교육을 통한 자원순환 의식 향상
- 주민실천과 모니터링을 통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 마을공동체 형성 및 마을의제 수립과 실천
- 테마가 있는 산본1동 시범골목만들기
- 주민 및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

사업내용

사업은 지역환경단체, 마을내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 산

본1동 주민센터의 협력으로 시작되었다. 함께할 수 있는 주민들을 모으고 기획회의, 주민들과 함께 동네를 돌며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SWOT분석을 통해 마을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고, 쓰레기 불법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교육을 통해 그 속에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2014년

- 우리동네수다방
- 동네한바퀴
- 주민교육 및 캠페인
- 모니터링
- 마을환경개선활동

2015년

- 동네한바퀴
- 주민교육 (청소년마을활동가)
- 마을축제
- 마을환경개선활동

2016년

- 주민교육
- 타지역사례견학
- 시범골목만들기
- 작은분리배출장만들기

든든한 청소년마을활동가

산본마을은 주민들 대부분이 맞벌이이다 보니, 낮시간에 많은 주민들이 모여 뭔가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 그래서 산본1동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들도 모였다. 바쁜 어른들과 이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동네 쓰레기 문제를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아동들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가샘과 함께,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이라는 주제로 큰화판에 함께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아이들 또한 살고 싶은 마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고, 그 그림은 인쇄가 되어 불법배출 상습지역에 걸어서 주민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피켓을 만들어 캠페인을 진행했다. 동네의 주요 구성원인 청소년들과 이주민이 함께 모여 재활용 박스를 이용해 문구를 적고, 함께 참여해주신 이주민께서는 중국어로 적어주셨다. 피켓을 들고 처음 골목으로 나갔을 때는 쑥스럽기도 했지만, 지나가는 어른들께서 '고생한다', '그래, 쓰레기 잘 버려야지~', '어른들이 잘해야 하는데...' 등 관심과 격려, 미안해하심에 청소년들은 힘이 불끈 난다. 우리 청소년들 주눅거림은 잠시였고, 너무나 재미있게 캠페인을 마치고, 다음에 또 하자고 하더니, 2015년부터는 연간활동으로 청소년마을활동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매월 정기적으로 모여 마을을 모니터링하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마을축제를 함께 하면서 서로가 많은 것을 배워나가고 있다.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산본마을 친환경 나눔축제~

2014년, 산본마을에서 처음으로 축제가 열렸다.

마을 인근의 5개의 초·중학교, 멀리서 지원와준 대학생, 지



역단체와 기관 그리고 마을주민들까지 모두 모였다.

초등학생들이 준비한 아기자기한 체험부스와 공연, 중학생과 대학생들의 지천분한 전봇대에 그림그리기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와 통장협의회에서 준비해주신 맛있는 국수까지...

국수 삶는 냄새가 마을 골목에 퍼지며 국수 한그릇으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운영하는 체험부스에는 평소 마을 골목에도 나오지 않고, 바쁘셔서 아이들과 함께하기도 힘들었던 부모님이 골목으로 나와 주셨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이웃주민들에게 부스를 운영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부모님들은 그 모습에 행복해하신다. 전봇대 그림을 그릴 때는 주민들이 고생한다며 간식을 내어주시기도 하고, 완성된 작품을 보시며 너무 예쁘다고 주변이 깨끗해졌다며 좋아하신다.

이웃주민들과 골목에서 함께 하는 소박하지만 시끌시끌 정감 넘치는, 골목이 살아 숨쉬는 따뜻한 마을 잔치였다. 마을축제를 준비한 주민들은 이후 정기적으로 하자고 결의를 하였고, 2016년에는 봄, 가을 2번의 마을축제를 준비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한 시민의 참여와 관심 up!

한편, 행정에서는 2015년에 마을정원조성사업을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했다.

이 사업은 산본마을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또한 종합복지관에서도 산본마을에서의 활동을 기관내 주요한 사업으로 진행하기 시작했고, 주변의 학교들 또한 마을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산본마을 주민들의 의식개선,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주요내용

- 추진기간 : 2014. 4 ~ 12월
- 함께 한 기관 및 단체(조직) :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군포매화종합사회복지관
- 사업주요내용
 - 기획회의(3회)
 - 1차 : 초록마을대학 취지 및 사업계획 설명, 세부계획 논의 등
 - 2차 : 군포초록마을대학 추진 현황 및 하반기 추진사업 논의 등
 - 3차 : 군포초록마을대학 추진 결과 공유, 향후 계획 논의 등
 - 우리동네수다방(간담회 / 2회) : 주민 및 전문가가 함께 모여 마을 과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지속.
 - 1차 : 동네한바퀴 결과 공유 및 논의, 모니터링 주제 및 방법 등 논의
 - 2차 : 캠페인 일정 및 세부내용 및 주민교육 논의, 마을환경개선 실천사업 장소 추천 등
 - 동네한바퀴(1회) : 2개조로 나누어 동네를 돌아보고, 지역 자원 맵핑 및 SWOT 분석.
 - 사례답사(1회)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방문, 안산 원곡본동 마을돌리보기 및 주민과의 만남 등
 - 주민교육(7회) 및 캠페인, 워크숍
 - 화가샘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 그리기
 - 청소년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알아보기, 캠페인, 워크숍
 - 모니터링(3회) : 6월, 8월, 12월
 - 쓰레기 배출 지정 외 함부로 버려지는 장소, 우범지역, 그림(예술작품)을 통해 변화가 되었으면 좋을 장소 등을 마을지도에 표시하고, 별도의 체크리스트에 배출된 쓰레기 종류 등 구체적으로 기록.
⇒ 이를 통해 사업 실시 후 변화되는 모습을 체크함.
 - 마을환경개선활동
 -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시범장소 결정(상습 불법투기장소 20여 곳)
→ 시범사업 실시(시설물 설치를 위한 논의 → 시안마련 및 제작,
→ 설치현장 답사 → 설치 등)
 - 양심거울, 안내판, 현수막 등 설치 및 부착

2015년 주요내용

- 추진기간 : 2015. 4 ~ 10월
- 함께 한 기관 및 단체(조직) :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산본1동 주민센터, 새마을부녀회, 통장협의회
- 사업주요내용
- 회의 : 기획회의 및 평가회의
- 동네한바퀴 : 지역 자원 맵핑 및 SWOT 분석
- 주민교육(청소년마을활동가)
 - 모니터링
 - 캠페인 : 산본 1동 쓰레기문제 인식 및 마을환경개선 캠페인
- 마을축제 : 청소년, 대학생과 함께하는 산본1동 친환경 마을 축제
 - 일 시 : 2015. 10. 23(금) ~ 24(토)
 - 장 소 : 산본1동 국민경로당 일대
 - 주요일정
 - 10월 23일(금)
가정 에너지 진단 / 청소년 마을환경 개선 활동(전봇대 그림그리기) / 대학생 마을환경 개선활동(환경정화 및 전봇대 그림 그리기)
 - 10월 24일(토)
지역 아동과 함께 하는 환경교육 / 그린캠페인 (청소년 체험부스 운영 및 공연, 대학생 동네한바퀴 캠페인) / 가정 에너지 진단 / 복지관 단열시공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린오찬 / 초록마을 한마당 (결과나눔, 활동 소감)
 - 주 최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
 - 주 관 :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인생나자작업장 사회적협동조합, 군포중, 광정초, 관모초, 산본초, 산본중,
- 마을환경개선활동
 - 청소년과 함께하는 쓰레기 무단투기구역 환경개선 활동 : 전봇대 타일제작 및 그림그리기
 - 에코토리와 함께하는 환경개선 : 마을청소, 시설물 설치를 위한 논의, 시안마련, 설치현장 답사, 현판제작 및 설치 등
 - 쓰레기무단투기금지 사인보드 제작·설치 등

○ 2016년에도 산본마을은, 그 동안의 초록마을대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 낙후된 골목길을 개선하고 시민의식을 변화시켜 나가며,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 그리고, 국수 한그릇의 행복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 중이다.

사업평가와 과제

산본1동에서의 활동은 성인마을활동가와 청소년마을활동가를 조직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청소년들이 지저분해진 거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활동한다는 점에서 동네 주민들이 기특해하면서도 한편으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청소년들의 캠페인은 주민들에게 문제를 인식하도록 돕고 의식을 개선하는데 일조하였으며,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개선의 의지가 높아졌다.

그리고 전봇대 그림그리기, 무단투기 금지 사인보드 설치, 마을정원 만들기, 캠페인, 마을축제 등에 주민들이 직접 함께 참여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깨끗한 동네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문전배출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

특히 마을 축제는 마을인근의 5개 초·중학교, 5개 단체 회원, 동 주민센터, 주민 등이 함께 어우러져 진행됨으로써, 주민들이 마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쓰레기 불법배출이 이전보다 나아진 모습들이 보이나 그래도 아직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주민들 스스로 느끼게 되었다



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사업의 주요특징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기관, 단체, 시민, 행정의 상호 협력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행정의 적극적 참여와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협력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

2. 청소년마을활동가 양성 : 마을에 관심을 갖고 활동 할 수 있는 청소년마을활동가 모임으로 구성하여 추진. 청소년들 스스로 마을에 관심을 갖고 캠페인, 모니터링, 마을환경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됨. 이를 통해 주민들도 활동하는 청소년의 모습을 보며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지역사회가 함께한 마을축제 : 2015년 마을에서 처음으로 열린 마을축제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다. 특히 마을과 인접한 5개 초·중학교 학생들이 함께하고, 행정과 새마을부녀회, 통장협의회, 복지관 등 기관·단체 그리고 경기도그린캠퍼스 대학생이 함께함으로써 소소하지만 시끌벅적한 마을잔치가 됨으로써 마을 주민들 스스로 매년 지속적으로 마을축제를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마을환경개선 : 전봇대의 변신



4. 마을내에 위치한 종합복지관의 중추적 역할 : 마을 내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속적으로 함께 사업을 추진, 복지관의 주요 사업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관심을 갖지 못했던 주택가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할 사람들을 조직함으로써 마을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 한두해로 쓰레기 불법배출 문제가 당연히 해결하기 어렵 듯 산본1동도 쓰레기 불법배출이 이전보다 나아진 모습들이 보이긴 하나 그래도 아직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활동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산본마을은 주민, 청소년, 지역사회 및 기관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마을환경개선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나가며 골목이 살아나는 마을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더디더라도 지역주민 스스로 함께 소통하는 활동을 통해 공동체가 살아나고, 살고 싶은 산본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후의 활동들이 더 많이 기대가 된다.

마을환경개선 : 전봇대의 변신

